

# 17세기 말 耽羅十景圖의 성립과 《耽羅巡歷圖帖》에 미친 영향

이 보 라

(홍익대학교박물관 연구원)

- I. 머리말
- II. 17세기 말 탐라십경도의 제작배경
  - 1. 17세기 지방관의 회화 후원
  - 2. 함흥·북관십경도의 영향
- III. 1703년의 《耽羅巡歷圖帖》
  - 1. 《耽羅巡歷圖帖》의 내용
  - 2. 실경산수화의 주제와 화풍
- IV. 탐라십경도가 《耽羅巡歷圖帖》에  
    준 영향
- V. 맺음말

## &lt;국문 요약&gt;

이 논문은 제주지방을 주목하여 17세기 말 이익태의 耽羅十景圖를 새롭게 조명하고 《耽羅巡歷圖帖》와의 연관성을 논의한 것이다. 탐라십경도는 기록적인 성격으로만 주목받아온 《탐라순력도첩》의 실경산수도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위해 먼저 19세기 탐라십경도들에 나타난 전통적인 화풍과 형식을 통해 앞선 시기의 탐라십경도를 추측하였다. 19세기 탐라십경도의 서문은 이익태의 것으로 화제나 구도 등에서 이전 시기의 화풍이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탐라십경도와 《탐라순력도첩》은 각각 1694년과 1703년에 제작된 제주목사의 기록으로 그림이 같이 남겨졌다. 이익태는 1694년 제주목사로 부임했을 때 제주를 두 번 순력한 후 탐라십경도를 만들었다. 이익태의 탐라십경도는 현존하지 않지만 17세기 함경도를 그린 남구만의 함흥·북관십경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드러난다. 1702년에 부임한 이형상은 순력을 비롯한 제주관아의 주요 행사를 시간 순으로 그려 사십 면이 넘는 《탐라순력도첩》을 만들었다. 이 중 해안가의 구도나 표현은 탐라십경도에 나타난 구도와 유사하며 백록담, 영곡 등을 제외하고 탐라십경의 명승지가 모두 그려진 점을 살펴볼 때 이전 시기 탐라십경도의 영향이 짙게 드러난다고 하겠다.

정형화된 팔경·십경도류의 회화는 최근 관동, 관서를 비롯하여 함경도 지역의 명승지들이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이 가운데 17세기 말 형성된 제주지역의 십경도는 17세기 실경산수화의 바탕아래 형성된 전통적인 화풍을 보여준다. 중앙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변방에서 지방화공의 전통적인 화풍을 살려 시대적인 유행을 따르기 위해 노력이 엿보인다.

주제어: 耽羅十景圖, 耽羅巡歷圖帖, 李益泰, 李衡祥, 巡歷, 濟州十景, 地方畫工

## I. 머리말

예로부터 뛰어난 명승을 자랑했던 제주도는 耽羅, 瀛州로 이름하였는데 고려시대에 복속된 후 중앙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다. 한양과의 거리가 멀고 뱃길로 가는 길이 험난하여 타지에서 쉽게 유람 올 수 없는 곳이었다. 제주지역은 주로 중앙에서 임명된 관리나 유배 온 죄수, 이들을 만나러 온 문인들이 방문하였으며, 이들의 저술과 회화활동을 통해 조정이나 교유문인들에게 알려지곤 하였다. 이들의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제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1694년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던 李益泰(1668~1704, 자는 大裕 본관은 延安)과 1702년 부임한 李衡祥(1653~1733, 호는 瓶窩 자는 仲玉 본관은 全州)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익태는 1694년 제주를 두 번 순력한 후 耽羅十景圖를 만들었다.<sup>1)</sup> 이익태의 탐라십경도는 현존하지 않지만, 《耽羅巡歷圖帖》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주도에 순력활동으로 인한 회화가 선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로부터 구년 후 1702년에 이형상은 부임 후 일어났던 순력 등의 주요 행사와 명승지 유람 등을 시간 순으로 그려 사십 면이 넘는 《탐라순력도첩》을 만들었다.<sup>2)</sup> 《탐라순력도첩》은 18세기 제주도의 지명이나 주요 군사지역들, 경관 등이 상세히 나타났으며 그림 속의 의례와 음악, 연회 등은 조선후기 지방관아의 행사를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 기록화적인 가치로 높이 평가받았다.<sup>3)</sup> 미술

1) 2005년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열린 이완희선생 기증유물특별전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조선중기 역사의 진실 - 이익태 牧使가 남긴 기록』(국립제주박물관, 2005), pp. 38~45.

2) 《탐라순력도첩》은 이형상이 보관하여 병와이씨 가문에서 전해졌으며 1979년에 이형상의 다른 유물들과 함께 보물 제625호로 지정되었다. 제주시에서는 1998년에 이를 인수한 후 보존처리 과정과 새롭게 粧潢하여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위탁 전시하고 있다.

3) 《탐라순력도첩》은 1980년 『南甯博物』과 함께 영인되면서 학계의 관심을

사학계에서도 의례적 규범에 의해 제작된 기록화로서의 규정과 그 범주 안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sup>4)</sup>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탐라순력도첩》의 실경산수화적 성격에 주목할 것이다. 특히 현존하는 후대의 작품들의 전형화된 양상과 《탐라순력도첩》의 연관성을 밝혀 17세기 말 이익태의 탐라십경도를 새롭게 조명하고 제주지역의 실경산수화 전통의 전개양상을 바라보고자 한다. 기록화적인 특징이 강조되었던 기존의 연구에서 발전하여 《탐라순력도첩》이 가지는 조선시대 회화사의 위치와 성격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17세기 말 탐라십경도의 제작배경

### 1. 17세기 지방관의 회화 후원

巡歷은 巡宣·巡道·巡都·行都·旬宣 등의 다양한 단어로 설명되어

받았는데 그 후 『탐라순력도연구논총』이 나오면서 지명, 군사, 역사, 풍물, 회화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찬 「耽羅巡歷圖 南嶺博物 解題」, 『탐라순력도·남한박물』(1984), pp. 1~9; 『탐라순력도』(제주시, 1994); KBS 역사스페셜 2000년 9월 9일자 방송 - 최초공개 탐라순력도 제주는 군사요새지였다편 『耽羅巡歷圖研究論叢』(濟州市·耽羅巡歷圖研究會, 2000)

- 4) 홍선표는 《탐라순력도첩》을 의례적 규범에 따라 제작된 기록화로 규정하고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성읍행사도, 牧官행사도, 탐승행사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중 탐승행사도는 명승명소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실용적인 實景圖 단계, 즉 진경산수화풍의 형성과정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 이후 홍선표의 연구를 바탕으로 김현지는 17세기 실경산수화에서 《탐라순력도첩》을 다뤘으며 이내옥은 《탐라순력도첩》을 실경산수화적인 요소를 배제한 민족지적 성격이 풍부한 기록화에 의의를 두었다. 홍선표, 「《탐라순력도》의 기록화적 의의」, 『탐라순력도』(제주시, 1994) 『조선시대 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pp. 483-494에 제수록; 김현지 「조선중기 실경산수화의 연구」(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pp. 134-137; 이내옥, 「탐라순력도」, 『한국문화와 제주』(서경, 2003), pp. 193-201.



지는데 지방관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임지의 각 처를 순회하며 감독하는 임무를 가리킨다. 지방관의 순력과 함께 그려지는 명승도는 관동, 관서 등 명승지가 많았던 지역을 포함해 멀리 변방의 함경도, 제주도 지역에 까지 그려졌다.

관동지역의 경우 이른 시기부터 지방관의 순력과 더불어 명승도가 그려졌는데 崔岵(1539~1612)의 『關東勝賞錄跋』에도 17세기 초 강원도 관찰사였던 韓公이 순력과 함께 관동명승도를 그렸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한공은 백성들의 풍속을 살필 겸 자연스럽게 山海와 각 지역의 勝景을 두루 살피며 지나왔는데, 그 사이에 빈객이나 자제들과 함께 산수를 감상하고 시를 읊는데 있어서 싫증나도록 즐기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는 韓公은 畫工에게 명하여 이를 묘사하게 하고 특별히 屏風으로 만들어서 집에 보관해두고는 뒷날 생각날 때마다 볼 수 있게 하였으니 …… 우리 공은 바로 이곳들을 뒤지고 다니면서 한껏 노닐었고, 게다가 그 기막힌 形勝을 가려 뽑아 그림 속에 담아 돌아왔으니, 이쯤 되면 도대체 신선을 귀하게 여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韓公이 너무 지나쳤던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바이다.<sup>5)</sup>

당시 『宣祖實錄』의 기록과 崔岵가 관동지역에 재직했던 기간을 살펴볼 때 韓公은 1605년 1월에 부임한 韓德遠(1550~?)이라고 여겨진다. 강원도 관찰사로 순력의 임무를 행하는 도중에 화공에게 명하여 자신이 순력한 지역을 그리게 하고 병풍으로 만들어 이를 거처에 두고 즐긴다는 기록이 흥미롭다.<sup>6)</sup> 이밖에 5년 뒤인 1610년에 삼척부사로 부임한 閔仁伯

5) 崔岵, 「關東勝賞錄跋」, 『簡易集』 卷3, “丹青以狀境 可以弗遺毫髮 而空翠襲人 飛瀑滿聽之爲快則未也 杖屨而遊方外 可以蟬蛻塵埃 而隨身尺素 觸目奔峭之爲要 則又何如也 然得乎此者 有所不能乎彼故也 足乎彼者 宜亦無事乎此也 孰若吾方伯韓公遵觀風之路 無枉轡之勤 而歷嶺嶽海若干區之勝 賓客子弟從於賞詠 無不厭飫乎其間 既而命工描寫 別作一屏 將藏 奉以爲後日觀 古人所云吾居未嘗無山者 殆無窮已矣 豈不已快且要也哉 嗟乎 十洲三島之縹緲 三十六洞之窈窕 神仙擅之以爲祕 乃遊焉恣其探討 而狀焉收攬而歸 如是則神仙顧何所有哉 吾爲執事者懼其太過也.” 최립 저, 이상현 역, 『국역 간이집』 1(민족문화추진회, 1999), pp. 428-429.

(1552~1626, 호는 苔泉 자는 伯春 본관은 驪興)이 자신이 다스렸던 삼척의 <죽서루도>를 감상하고 《관동도병》을 만든 기록이 남아있다.<sup>7)</sup> 민인백은 삼척의 竹西樓를 관동팔경의 으뜸으로 꼽았는데, 자신이 부임한 지역의 위상을 높게 하고 뛰어난 경치에 자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지방의 부임관리들이 순력하는 동안 화공을 시켜 그림을 그리게 한 전통은 18세기 중반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金尙星(1703~1755)의 《關東十境圖帖》에서도 나타난다. 《관동십경도첩》은 김상성이 관동지방을 순력한 1746년~1748년에 그려진 시화첩으로 지방화공의 전통적인 화풍이 보여주는 작품이다.<sup>8)</sup> <죽서루도>에서 보이는 회화식 지도의 구도와 다양한 채색 등의 화풍은 중앙의 난숙한 화풍의 작품을 접하기 힘든 지방화사들이 흔히 실경을 표현할 때 자주 그리는 화풍이다(도 1). 이는 비교적 직접 작품을 볼 수 있고 숙련하기 손쉬워 애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탐라십경도본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함경도에도 지방관의 순력과 명승도첩의 제작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1644년 중앙에서 시관으로 파견된 金壽壇(1624~1701, 호는 谷雲 자는 延之 본관은 安東)과 지방관들이 그린 시화첩으로 『北關酬唱錄』이 있다. 당시 도화서 화원이었던 韓時覺(1621~1691 이후)이 그린 七寶山 지역의 실경산수화가 전해진다.<sup>9)</sup> 또한, 南九萬(1629~1711, 호는 藥泉)이 함경도관찰사로 재직했던 1674년에 만든 《咸興十景圖》, 《北關十景圖》는

6) 이보라, 「朝鮮時代 關東八景圖의 研究」(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pp. 38-40.

7) 이보라, 앞의 논문, p. 15, pp. 34-36.

8) 김상성은 《관동십경도첩》이외에도 《영남첩》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당시 유행했던 산수유람과 시화첩제작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曺夏望, 「會稽錄」, 『西州集』 卷3, “<道伯金士精尙星 寄示臥遊帖 要和內外山及嶺東西各步一韻 答之>”, <道伯金士精 續投嶺南帖 逐篇要和 依韻題答>(김상성 외 저, 규장각 역, 『관동십경』(효형출판, 1999), p. 112 재인용)

9) 李泰浩, 「한시각의 《북세선은도》와 《북관십경도》 정선 진경산수의 선례로서 17세기의 실경도」, 『정신문화연구』 3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pp. 207-235.

명승지와 더불어 지역적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제재를 선정하고 있어 주목된다.<sup>10)</sup> 함흥과 북관십경도는 남구만이 직접 유형화를 시킨 것으로 연대와 기록이 남겨져 중요성을 더한다.<sup>11)</sup> 남구만은 기존에 명승지를 감상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성계의 사적지와 군사적 요충지들을 강조하였다.<sup>12)</sup>

17세에는 관찰사들이 각 지역을 순력하며 명승지를 들러 화공에게 이를 그리게 하는 일이 유행하였다. 그런데 남구만의 경우처럼 관찰사들은 유명한 절경을 그리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파견된 지방의 주요 행사, 역사나 유적지를 그리는 것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1664년(숙종 5년)에 시행된 文武兩科都會試를 그린 한시각의 《北塞宣恩圖》에 당시 함경도 관찰사이던 閔鼎重(1628~1692)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이경화의 연구가 발표되었다.<sup>13)</sup> 주목할 만한 것은 민정중이 영남관찰사로 재직했을 당시 임진왜란 때 순절한 송상현(1551~1592)을 조사하고 殉節圖를 제작한 사실이다.<sup>14)</sup> 민정중이 보통 1~2년의 짧은 관찰사의 임기기간 중 주요 행사나 역사적인 사실을 그림으로 남기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東萊府殉節圖>의 경우 민정중 이외에도 많은 관리들이 그림으로 남겼다. 1709년 동래부사 權以鎭(1668~1734)이 그리게 하여 서원에 안치하였고 50년후에 낚아진 본을 동래부사 洪名漢(1724~1774)이 동래부 화원이었던 卞璞(1702~1784이후)을

10) 洪善杓, 「南九萬題 咸興十景圖」, 『미술사연구』 2(미술사연구회, 1988), pp. 139-148; 이수미, 「《咸興內外十景圖》에 보이는 17세기 실경산수화의 구도」, 『美術史學研究』 233・234호(한국미술사학회, 2002, 6), pp. 37-62.

11) 咸興十景 : 本宮, 祭星壇, 擊毬亭, 廣浦, 知樂亭, 樂民樓, 一遇巖, 龜景臺, 白岳瀑布, 金水窟  
北關十景 : 鶴浦, 國島, 道安寺, 挂弓亭, 釋王寺, 城津鎮, 七寶山, 彰烈寺, 龍堂, 撫夷堡

12) 이수미, 앞의 논문, pp. 21-22.

13) 이경화, 「北塞宣恩圖 연구」, 『美術史學研究』 254호(한국미술사학회, 2007, 6), pp. 41-66.

14) 위의 논문, p. 48.

시켜 다시 그리게 하였다.<sup>15)</sup> 현재 보물 제392 호로 육군박물관 소장 중인 <동래부순절도>는 변박이 이전 본을 바탕으로 다시 그려진 그림이다.

이처럼 17세기에 지방에 부임한 관리들이 자신이 부임한 지역의 명승지나 사적·요충지를 회화로 제작하는 것은 자신이 부임한 시기를 기념하려는 의도 뿐 아니라 임지의 홍보의도와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라 판단된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동 시대 부임했던 관리들의 공통된 관심사였던 것이다. 제주의 경우에도 시기는 늦지만, 17세기 말 이익태와 18세기 초 이형상의 경우에서 이러한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제주의 경우 형식상으로 전라도 관찰사가 경영하지만, 실제적으로 통치가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제주목사가 1년에 두 차례씩 제주목사가 도내의 주요 곳을 순회 감독하였다. 이 중 앞에서 언급한 1694년 이익태와 1703년 이형상은 순력활동에서 화공을 대동하여 그림을 그렸다.

이익태는 1694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후 1696년 2월까지 제주도에서 체류하면서 관덕정을 중수하며 굴림서원에 송시열을 추증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의 저서인 『지영록』에는 이익태의 순력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순력은 1694년 9월 9일에 출발하여 9월 19일까지 11일간 이루어졌는데 제주목에서 출발하여 조천관을 거쳐 정의현, 대정현과 주요 군사지와 명승지를 유람하는 일정이었다(표 1). 이익태는 제주도를 두 번 순력하고 십경을 선택하여 병풍을 만들었다.

그 관방의 경승이나 암폭의 기이한 곳은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등한히 하여 간과하므로 사실을 기록하여 청송이 자자한 곳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육지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적으니, 애석한 일이다. 나는 몇 년 사이에 두 번이나 순력하면서 습속을 물어보는 여가에 이른바 불만한 곳이나 이전 사람들의 발자취가 닿지 않았던 곳을 속속들이 찾아내어 두루 밟고 건너지 않은 곳이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경승 열곳을 화

15) 변박의 생애와 활동은 김동철, 「倭館圖를 그린 卞璞의 대일 교류 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 제19집(한일관계사연구회, 2003), pp. 50-57 참조.

가(龍眠)을 고용하고 손수 형상을 본떠 그려내어 조그만한 병풍을 하나를 만들었다. 뒷면에는 그 사적을 서술하여 가져다 보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sup>16)</sup>

화기를 통해 이익태가 유명한 절경과 숨겨진 경치를 찾아내어 직접 십경을 선택하였다고 여겨진다. 육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이 적은 것을 안타까운 마음에 십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각 그림의 뒷면에 사적의 설명을 서술한 병풍형식으로 십경도를 제작하였음을 언급하였다. 1694년에 만든 <탐라십경도>는 현존하지는 않지만 『지영록』에는 朝天館, 別防所, 城山, 西歸浦, 白鹿潭, 瀛谷, 天池淵 현 天帝淵, 山房明月所, 翠屏潭 등 열 곳의 명승지가 언급되었다.<sup>17)</sup>

1702년 이형상의 제주순력의 경우 이익태와 여정은 유사하지만 규모가 컸다(표 12). 이형상이 화공을 시켜 제작한 <탐라순력도첩>를 통해 가을순력의 일정이 <화북성조>로 시작되어 제주목에서 거행한 <제주양노>까지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화첩에는 각 성과 진을 지키는 군사를 점검하고 활쏘기 시합과 경로잔치 등을 벌이는 모습이 세밀하게 기록되었으며 그림면 아래쪽에 날짜와 함께 참가인원 등의 설명이 추가되었다.

그림뿐만 아니라 판소리계 소설인 「배비장전」에서는 제주목사의 부임이 등장한다. 「배비장전」은 조선조 소설 중에서 제주도를 주무대로 펼쳐지는 작품으로 중앙의 관리가 제주에 와서 겪은 일을 다루고 있다. 묘사적인 장면이 많은 소설의 특성상 제주목사 김경의 부임행차와 목사 일행이 꽃놀이 갈 때 펼쳐지는 장면은 <탐라순력도첩>의 이형상 행차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 흥미롭다.<sup>18)</sup>

16) 고창석, 「이익태 목사의 업적」, 『조선중기 역사의 진실 - 이익태 목사가 남긴 기록』, 국립제주박물관, 2005, p. 116 재인용.

17) 현재 알려진 영주십경은 매계 이한우가 품제한 것으로 城山日出, 靈室奇岩, 正房夏瀑, 紗峰落照, 橘林秋色, 鹿潭晚雪, 山房窟寺, 古藪牧馬, 山浦釣漁, 瀛丘春花로 17세기 십경과는 다른 곳이 나타난다. 이한우의 영주팔경과 영주팔경시가 정형화된 과정에 관해서는 김세미오, 「梅溪 李漢雨의 詩文學攷」(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p. 56-66 참조.

18) 김동윤,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도」(탐라문화연구소·온지학회 공동 학

## 2. 함흥·북관십경도의 영향

1694년의 탐라십경도는 전해지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형식의 19세기 탐라십경도본들이 현존하여 주목된다. 이들 19세기 본들은 앞에서 살펴본 이익태의 화기 내용처럼 뒷면에 여백을 두어 사적의 이름과 설명을 적고 아래쪽에 그림을 그렸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의 두 본과 일본 고려미술관본이 있는데,<sup>19)</sup> 십경의 구성, 형식뿐만 아니라 뒷면에 적혀진 글도 이익태의 『지영록』 기록과 일치한다. 이익태의 탐라십경이 원형본이 되어 정형화된 상태로 후대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탐라십경의 구성을 살펴보면 비교적 잘 알려진 산방, 성산, 천지연(현 천제연) 외에도 백록담, 영곡 등 제주의 秘境과 군사적인 성격을 지닌 조천관, 별방소, 명월소 등의 지역이 포함되었다. 이 중 천지연의 경우 당시 제주에 천지연이란 이름을 가진 폭포가 두 곳이였기 때문에 혼동을 준다. 『지영록』에서 이익태는 9월 14일에 각각 다른 곳의 천지연을 유람하였다. 이형상의 『남환박물』에는 天池淵과 小天池로 이름붙여져서,<sup>20)</sup> 천지연이라는 이름을 공유하면서 작은 천지로 불리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곳의 天池淵 중 이익태의 십경 중에 들어간 천지연은 9월 14일에 대정현에서 20리를 간 후에 만난 곳이다. 9월 13일 이익태는 西歸所에 도착하였다. 正方과 天地, 두 폭포가 있었으며 다음날 아침 천지연 꼭대기에 올라가, 폭포 떨어지는 것을 구경하고 늦게 출발하였다고 한다.<sup>21)</sup> 또 그 후에 “또 20리를 가니 연못이 있었는데, 역시 이름이

술발표대회 요지문, 2007), pp. 80-83.

19) 이들은 각각 영주십경도, 탐라십경도, 제주십경도로 이름하였는데 일본고려미술관의 경우 지도를 포함하여 산방, 명월소, 취병담이 존재하고 국립민속박물관의 탐라십경도는 지도, 산방, 백록담, 영곡이 남겨졌다. 이에 반해 한반도와 바다에 실린 제주십경도는 온전한 10경을 모두 포함한 병풍이지만 민화풍의 필치로 세 본 중 가장 필력이 낮다. 『高麗美術館所藏品圖錄』(일본고려미술관 2003), 도114-7번; 『조선중기 역사의 진실 - 이익태 목사가 남긴 기록』(국립제주박물관, 2005); 『한반도와 바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pp. 16-21 참조.

20) 이형상, 『남환박물』 誌勝

천지연이었다. 주변에 초가집이 세 채 있는데 위낙 말쑥했다. …… 폭포의 빼어난 절경은 서귀의 두 연보다 대체로 나았다.”라는 설명으로 이익태가 선택한 폭포가 지금의 천제연임을 알 수 있다.<sup>22)</sup> 탐라십경도의 천지연 서문 중 “건너편 바위사이에 기둥 몇 개 있는 초가가 단풍들 숲속에 은은히 비친다.”라는 글도 14일의 기록과 일맥상통한다.<sup>23)</sup>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산방, 성산, 서귀포 이외에도 한라산 꼭대기에 위치한 백록담과 대정현에 위치하여 기암괴석들이 늘어선 영곡은 타 지역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절경이었다.

조천관은 육지로 나가는 자는 모두 여기서 바람을 기다리고, 전라도를 경유하여 세 고을에 들어오는 자도 모두 이곳과 涯月浦에 배를 댄다고 하여 매우 번성한 진이었다.<sup>24)</sup> 별방소와 명월소는 군사적 중요한 요충지로 문관, 창곡, 군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1, 2위를 다투는 곳이었다.<sup>25)</sup>

이상을 볼 때 탐라십경도는 다양한 성격의 지역들을 십경으로 선택하여 남구만의 십경도 제재와 유사한 면을 보여준다. 팔경이나 십경은 關東과 關西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들지역이 누정을 중심인데 반해 함경도와 제주는 명승지와 함께 군사적인 요충지나 유적지가 중요시되어 차별성이 드러난다. 이외에도 남구만의 《咸興十景圖》, 《北關十景圖》와 이익태의 《탐라십경도》는 그림의 제작배경, 구성 등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이들 십경도의 제작후원은 두 사람이 지방관으로 부임한 후 순력하며 각각 십경을 선택하였으며 화공에게 그리게 하였다. 또한 위쪽에 여백을 두어 사적을 서술하고<sup>26)</sup> 아래쪽에 그림을 그려 병

21) 이익태, 앞의 책, pp. 22-25.

22) 이익태, 위의 책, p. 25.

23) 이익태, 위의 책, p. 70.

2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全羅道 濟州牧

25) 이익태의 앞의 책, p. 71.

26) 남구만의 《咸興十景圖》, 《北關十景圖》의 경우 17세기 후반 경의 <一遇巖圖>・<龜景臺圖>(함흥십경도의 일부)와 19세기에 그려진 《咸興內外十景圖》帖에 南九萬이 지은 「咸興十景圖記」와 「北關十景圖記」가 실려져 이들

풍으로 만드는 것도 유사하다.<sup>27)</sup> 18세기에 제작된 관서팔경도나 김상성의 《관동십경도첩》이 화면 전체에 그림을 그리고 위쪽에 화제를 적은 것에 비해 정형화된 양식이 엿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유사성을 토대로 십경을 만든 주인공인 이익태와 남구만을 유의 깊게 살펴보았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두 인물의 특별한 교유관계는 나타나지 않지만, 남구만이 함경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1671년에서 1674년 사이에 이익태가 함경도 고산찰방과 고산찰방안변 등 교양관으로 임명되어 관직생활을 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이익태의 관직생활 중 제작 중인 남구만의 십경도를 보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이익태는 1677년에 다시 함경도 시관으로 임명되어 함흥에 부임하였는데 1670년대 그의 관직생활이 함경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생각할 때 남구만이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더라도 남구만의 서문이 적혀있는 다른 십경도본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 Ⅲ. 1703년의 《耽羅巡歷圖帖》

#### 1. 《耽羅巡歷圖帖》의 내용

《耽羅巡歷圖帖》은 1703년 이형상에 의해 제작된 43면의 화첩으로 회화식 지도의 전통적인 화풍 속에 그려졌다. 끝부분의 書記와 <浩然琴書>를 제외하고 모두 같은 형식으로 그려졌는데 박락된 부분이 거의 없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었다. 55×35cm의 壯紙에 계회도형식처럼 삼단으로 나누어 윗부분에 表題를, 중간부분에 그림을 아랫부분에 그림의 설명을 적어 넣었다(도 2). 각 부분을 붉은 선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으

지역의 십경도가 후대까지 정형화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27) 林泳(1649~1696)의 기록을 통해 처음 남구만 집안에서 소장되었던 《北關十景圖》가 병풍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林泳, 『滄溪先生集』卷之十四, 「與南子聞」(총간 卷159, p. 339) "盡日如坐深甌 無一點清涼意 忽得書竝北關十景圖屏 ……"



며 그림을 먼저 그린 후에 선으로 구획하였다.

화첩에 포함된 두 면의 畵記에는 제주도의 대한 설명과 간단한 역사를 언급하였는데 끝부분에 이형상이 부임한 후 巡歷의 내용을 그리고 화공의 이름과 날짜, 화첩의 완성시기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봄 가을로 매년 절제사가 직접 방어의 실태 및 군민의 풍속을 살피는데, 이를 巡歷이라 한다. 나도 舊例에 따라 10월 그믐날 출발하여 한 달 만에 돌아왔다. 이 때 半刺 李泰顯, 旌義縣監 朴尙夏, 大靜縣監 崔東濟, 監牧官 金振麟이 모두 지역별로 陪行하고자 도착하니 이에 일어나 말하기를, “이번 행차는 참으로 기록할 만하다”고 하였다. 島民이 君恩에 감격하여 巾浦에서 拜까지 하면서 음식을 모두 불태웠으며, 이제 무당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없어졌다는 것은 더욱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곧 한가한 날에 畵工 金南吉로 하여금 40圖를 그리게 하고, (또 吳老의 筆을 요청해) 一帖을 粧潢하고 耽羅巡歷圖라 이름하였다.

癸未년 竹醉日(5월 13일)에 濟州營 臥仙閣에서 쓴다.<sup>28)</sup>

위의 기록을 통해 1702년 제주목사 겸 수군병마절제사로 부임한 이형상이 화공 金南吉에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화기의 기록은 《탐라순력도첩》과 『瓶窩先生文集』의 두 곳에 동시에 남겨져 있는데, 《탐라순력도첩》의 화기에는 “또 吳老의 筆을 요구해(且要吳老筆)”라는 부분이 생략되었다. 화첩을 장황했던 吳老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형상과 친분이 있었던 吳始復(1637~1713, 호는 休谷 자는 仲初 본관은 同福)이라 추측되는데 유배 온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9)</sup>

28) 이형상, 「耽羅巡歷圖序」, 『瓶窩先生文集』 卷之十四 “…… 每當春秋 節制使親審防禦形止及軍民風俗. 謂之巡歷. 余亦遵舊例 發行於十月晦日. 閱一朔乃還時半刺李泰顯 旌義縣監朴尙夏 大靜縣監崔東濟 監牧官金振麟 皆以地方陪到乃作而曰. 此行可紀. 且也島民感君恩. 至有巾浦之拜. 而淫祠皆火之. 今無業巫覡者. 是尤不可以無言也. 卽於暇日. 使畵工金南吉 爲四十圖 (且要吳老筆 粧潢爲一帖. 謂之耽羅巡歷圖. 時癸未竹醉日. 題于濟營之臥仙閣.” (이형상, 『국역 병와집Ⅲ』(정신문화연구원, 1990), pp. 55-56 재인용 - 필자 일부 수정)

29) 오시복은 1662년(현종 3)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글을 잘 쓰는

이형상은 孝寧大君의 10대손으로, 1677년(숙종 3)에 사마시를 거쳐 168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성주목사, 동래부사, 경주부윤, 제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는데 덕망을 갖춘 청백리로 이름높았으며 학식과 잡학에 능하여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이형상은 소론계 학자였으나 당파를 극복하며 사람을 사귀었으며 남인계열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그와 인척관계를 맺은 恭齋 尹斗緒(1668~1715) 역시 남인계였다. 이형상과 윤두서의 편지와 윤두서의 권유로 지어진 『남환박물』 등에서 두 사람의 교유관계를 알 수 있다. 윤두서가 1706년 비단에 먹으로 그린 《五聖圖》는 축 형식의 그림으로 완산이씨 병와공파종회에 소장되어 두 사람간의 회화교류를 뒷받침한다.<sup>30)</sup> 이를 통해 이형상이 평소 그림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그림은 마지막장의 <호연금서>까지 모두 41면인데(표 2), <호연금서>가 화기의 뒤에 포함되어 그림 점수로 포함되지 않은 점과 그림의 형식이 3단으로 구분되지 않고 크기가 맞지 않아 화첩의 옆면까지 접혀서 장황된 점을 볼 때 뒤에 따로 그려져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도 3). 이형상이 화기에서 강조한 약 20일동안 벌여졌던 가을 순력행사(10월 29일~11월 19일)과 <巾浦拜恩>은 자신의 중요한 치적의 일부였다. <건포배은>은 마을 곳곳의 신당들이 불타는 모습과 향품문무 300여명이 관덕정과 건입포에서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여拜를 올리는 장면이 함께 그려진 것이다(도 2). 그림에는 두 가지 사건이 함께 그려져 마치 동시에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형상이 제주에 만연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조정에 보낸 장계에 허락이 떨어지자, 향품문무가 임금을 향해 절을 올리는 것과 이형상을 찾아와 유교적인 풍속을 따를 것을 약속한 후에 신당을 파괴한 사건을 그린 것이다.<sup>31)</sup> 임금의

것으로 유명하였는데 한성판윤, 호조판서, 이조판서 겸 수어사를 거치다가 1701년 巫蠱의 옥사에 연루되어 大靜縣에 안치되었다. 이형상은 조정에 올린 장계 중에 오시복을 두둔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어 탄핵되었다.

30) 이내옥, 『공재 윤두서』, p. 50-51

은혜와 자신의 유교적인 통치를 동시에 그려 무속이 만연한 제주지역에서 선정을 강조하였다.

《탐라순력도첩》은 1702년부터 1703년까지 순차적으로 그려졌는데 제주목에 도착한 후 가장 처음 그려진 것이 제주도의 지도인 <한라장축>이다(도 4). 자신이 부임한 지역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는 것은 이른 시기부터 통치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는 1477년(성종 8년)에 金宗直(1431~1492)이 선산부사 재임 때 화공으로 하여금 지도를 그리게 했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sup>32)</sup> 19세기 초 丁若鏞(1762~1836)은 수령이 취임한 후 고을의 회화식 지도를 상세히 만들어 이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수령은 취임한 지 10일이 지나거든 노숙한 아전으로서 글을 잘하는 자 몇 사람을 불러 그 고을의 지도를 작성케 하되 周尺 1척의 길이로써 10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 …… 이 지도를 얇은 빛깔로 채색하되 기와집은 푸르게, 초가는 누르게 할 것이며, 산은 초록으로, 물은 청색으로 하고 도로는 붉은 벽돌 색을 입힐 것이다. 이를 政堂의 벽에 걸어두고 항상 살펴본다면 온 고을 백성들의 주기가 바로 눈앞에 있는 듯할 것이요, 공문서를 띄우거나 사람을 보낼때에도 그 멀고 가까움과 가고 돌아옴을 모두 손바닥 보듯 할 것이니, 이 지도를 만들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sup>33)</sup>

<한라장축>은 제주목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1702년 4월 15일에 그려졌다. 정약용의 글처럼 채색을 칠하여 넓은 제주지역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제주지역의 거리를 서술하기도 하였다.

화첩의 주제는 크게 기록화적인 행사도와 명승유람도로 구분할 수 있

31) 하순애, 「18세기 초 제주인들의 신앙생활과 신당과괴사건」, 『耽羅巡歷圖研究論叢』(濟州市·耽羅巡歷圖研究會, 2000), p. 347.

32) 한국역사연구회조선시기사회사연구반, 『(대우학술총서)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아카넷, 2000), pp. 261-262.

33) 앞의 책, p. 262-263.

는데 말과 감귤을 봉진하는 일, 수렵 등의 제주목의 중요한 행사와 가을 순력행사가 모두 삼십면이 그려졌으며 이와 함께 제주의 유명한 명승지를 유람한 십면이 그려졌다(표 2).<sup>34)</sup> 기록화적인 행사도에는 순력행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승지를 탐방하고 유람하는 장면은 성산 일출봉, 김녕굴, 정방폭포, 천지연, 천제연, 산방산, 취명담, 현재의 용연, 김녕굴 등 제주의 유명한 명승지를 돌아보았다.

## 2. 실경산수화의 주제와 화풍

《耽羅巡歷圖帖》의 실경화풍은 평면적인 지도를 확대해놓은 듯한 지형에 먹으로 선을 그리고 칠한 후 다양한 색으로 채색하였다. 부감시의 시점을 사용하여 멀리서 바라보는 형태와 정면에서 바라보는 형태 등으로 그렸으며 배경이 되는 나무나 촌락들은 소략하게 표현되었다. <한라장축>과 성산과 우도, 산방산 등을 그린 해안선의 지형은 매우 흡사하여 화가가 실제 지형의 표현에 정확성을 기울였다고 판단된다(도 6, 7). 순력도첩을 그린 김남길은 제주목 소속으로 추측되므로 회화식 지도의 표현에 능숙했을리라 여겨진다. 지방관아의 화공들의 주된 작업은 군현지도를 그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 도화서 화원들의 공적인 역할과 유사하였다.<sup>35)</sup> 그러나 지방화공들은 이

34) 탐라순력도첩 안에 있는 사십일면의 개별설명은 이미 발간된 영인본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또한 탐라순력도첩의 기록화적인 성격은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개별적인 언급은 생략하며 표 1에서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탐라순력도』(제주시, 1994); 홍선표, 앞의 책, pp. 483-494.

35) 화원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지도의 참여와 기물의 모사, 의궤 등의 국가적인 행사의 기록, 건물의 단청을 그리고 어용이나 어진을 제작하는 일, 중국사신들이 요구하는 실경산수도등을 그리는 일, 불화의 제작, 세화 등의 장식화를 그리는 일 등으로 나타난다. 안휘준, 「조선시대의 화원」, 『한국문화』 9(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8)(『한국 회화사 연구』(시공사, 2000), pp. 732-761에 제수록); 박정혜, 「의궤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화원」, 『미술사연구』 9호(미술사연구회, 1995), pp. 203-290;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돌베개, 2001); 박은순, 「혜사(慧史) 문명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 화원과 궁중

에 비해 숙련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작았으며 지도의 제작이나 기물모사, 지방관아의 기록화 등이 행해지고 능력에 따라 중국사신들의 요구에 따른 실경산수도 등을 그렸다.<sup>36)</sup>

《탐라순력도첩》에는 백록담과 영곡을 제외한 탐라십경이 그려졌다. 탐라십경의 구도가 나타난 그림을 살펴보면 <山房盃酌>, <屏潭泛舟>, <懸瀑射候>, <城山觀日>, <明月操點>・<明月試射>, <朝天操點>, <別防操點>・<別防試射>, <西歸操點> 등이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이 익태의 기록과 현존하는 19세기 《탐라십경도》들과 비교하도록 하겠다.

탐라십경도의 화제는 아니지만 <金寧觀窟>, <橋林風樂>, <羔園訪古>도 명승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김령관굴>은 현재 북제주군 구좌읍 일대에 걸쳐있는 용암동굴지대인 김녕굴을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소략한 배경과 측면이 보이는 굴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실제로도 1만m가 넘는 길이를 가지고 있어 긴 굴을 표현하기 위해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다(도 8). <굴림풍악>과 <고원방고>는 과원에서 풍악을 즐기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굴림풍악>은 제주목 안의 북과원 굴나무들은 갖가지 색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품종의 굴나무가 익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도 9). 굴이 익어가는 향기를 맡으며 풍악을 즐겼던 이형상의 모습이 그려졌다. <고원방고>는 순력 도중에 王子旧址 터가 있었던 과원에서 풍악을 즐기는 모습을 그렸다.

이상과 같이 《탐라순력도첩》에는 탐라십경 이외에도 다양한 명승도가 그려졌으며 기록화적인 성격뿐 아니라 17세기 실경산수화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회화 -조선 초기 궁중회화의 양상과 기능(2)』, 『강좌미술사』 26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pp. 1015-1545; 柳京熙, 「해사(叢史) 문명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 왕실 발원 불화와 궁중 화원」, 『강좌미술사』 26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pp. 575-608.

36) 구체적으로 평양에서 활동했던 曺世傑(1635~?)과 동래에서 활동했던 卞璞(18세기 후반 활동), 이시눌(19세기초 활동)의 예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 IV. 탐라십경도가 《耽羅巡歷圖帖》에 준 영향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탐라십경은 명승지적 성격과 군사적 성격 등을 다양하게 지닌다. 먼저 <산방배작>, <병담범주>, <현폭사후>, <성산관일> 등의 명승지적 성격을 가진 작품들을 살펴보겠다.

<산방배작>은 전체적인 중앙에 산방을 크게 포치하여 반허리쯤에 하나의 굴이 석실을 이루는 모습이 그려졌다(도 10). 실제경관과 비교할 때 산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석굴 앞의 나타난 노송의 표현과 산방산 옆 봉수대의 표현 등 주변의 세부내용까지 그 모습이 일치한다(도 11). 현재 석굴 안에 산방굴사가 위치하였는데 이익태의 기록과 이형상의 그림에는 사찰의 기록이 없어 19세기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산방배작>에서는 측면으로 굴의 깊은 곳까지 그려져 이형상이 굴속에서 기녀에게 잔을 받는 모습을 그리는데 반해 19세기 본들에는 <산방>의 굴 안에 불상이 안치되어 있는 모습이 정면으로 그려졌다(도 12). 또한 <산방배작>은 보다 근거리의 화면포착으로 아래쪽 대정현의 모습과 바다 쪽의 섬이 표현되지 않았으며 순력행차가 산방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병담범주>의 배경은 오늘날의 용연(취병담)으로 포구와 바다 사이에 작은 沙場을 두고 조수가 통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여 빼어난 절경을 이루었다(도 13).<sup>37)</sup> 부감시로 평면적인 지도형식의 해안가를 그렸는데 沙場 안의 포구를 살펴보면 칙냉쿨이 내려오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세 척의 배가 그려졌다. 규모가 가장 크고 차양이 있는 배에 이형상과 배행하는 사람들, 기녀들, 악사들이 탑승하였는데 이형상이 앞은 반대편에서 무고춤을 추는 것이 확인된다.<sup>38)</sup> 또 다른 배에는 홍상모와

37) 이익태, 앞의 책, pp. 71-72.

38) 장효순,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연희에 관한 연구-무용을 중심으로」 『耽羅巡歷圖研究論叢』(濟州市·耽羅巡歷圖研究會, 2000), p. 429.

삭모를 꽃은 흑립을 쓰고 앉아 있는 광대들도 볼 수 있어 호화로운 연회를 펼쳤음을 알 수 있다.<sup>39)</sup> 유람하는 배 안에서 춤을 추는 모습은 <정방탐승>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형상은 정방연을 제 1의 명승으로 꼽았다(도 14).<sup>40)</sup> <정방탐승>에서도 배 안에서 무고춤과 함께 남성 이인무가 행해졌으며<sup>41)</sup> 이형상은 배 위에 함께 타지 않고 호수 밖 日傘을 쓰고 관람하였다. <병담범주>의 구성과 제재는 일본 고려미술관의 <취병담>에서도 나타난다(도 15). <취병담>에도 배안에서 추는 이인무가 그려지는데 <정방탐승>과는 달리 남녀가 추고 있다. 한편 이형상은 제주 해녀들이 나체로 잠수 작업하는 것을 금하였던 자신의 치적을 그림 속에 함께 표현하였다. <병담범주>의 왼편에 잠녀들이 가슴까지 오는 옷을 입고 물질하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천제연을 그린 <현폭사후>는 정면에서 바라본 폭포에서 활쏘기 시합을 벌이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폭포의 양쪽 끝에 줄을 매달고 薊人이 화살통을 지고 나르는 모습이 그려졌다(도 16). 《탐라십경도》의 천제연 기록을 살펴보면 “……연의 서쪽에 장막을 쳐놓는데 잠두여서 겨우 다닐 수 있는 시도로 사람은 올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주인이 화살통을 지고 줄을 잡아 다니며 왔다 갔다 한다. 절경의 경치는 거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나타난다.<sup>42)</sup> 현존하지는 않지만 《탐라십경도》 중 <천지연(현 천제연)>이 폭포에서 활쏘기 시합을 하는 모습과 주인이 화살통을 지고 줄에 매달려 폭포를 건너는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상폭의 서쪽 암벽에 임관주의 시가 전해지는데 이 곳에서 행해지는 사후가 조선후기까지 계속되어 명승유람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sup>43)</sup> 주인이 화살통을 지고 폭포를 건너는 모습은 민속박물관의 <천지

39) 고부자,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복식」, 위의 책 pp. 326-327.

40) 『남환박물』 誌勝 正方淵

41) 고부자, 앞의 책, p. 433.

42) 이익태, 앞의 책, p. 70.

43) 천제연 열린 곳에 큰 폭포 흘러내려, 총석(叢石)으로 옮겨오고 깊은 못에 쏟아지네. 주인은 화살을 지고 공중을 걸어가니, 제일 기이하고 불만한

연>(현 천제연)과 천지연을 그린 <천연사후>(도 17, 18)에도 나타나 있는데 폭포 주위의 나무 모습이나 폭포물의 웅장한 표현 등에서 좀더 간소화되어 나타났다. 천지연이 간소화되는 것에 비해 제3폭포까지 있는 천제연을 좀더 복잡하게 표현하였다(도 19).

<성산관일>은 우도 방향에서 성산을 바라본 모습으로 이형상이 꼭대기 봉수대 앞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다(도 20). 성산의 일출은 오늘날에도 유명한데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올라가곤 한다. 성산은 V자나 W자를 연속하여 뽀족하게 가는 선으로 그렸으며 먹색으로 살짝 채색을 하였으며 그 위에 청색과 연두색, 붉은 색 등을 다양한 색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나무와 꽃 등을 화려하게 표현했다. 《탐라십경도》의 성산 기록을 살펴보면 “둘레 사면을 바라보면 마치 성가퀴와 같아서 城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 많은 나무와 굴나무가 있어 과원이 되었고 겸하여 윗 봉우리에 봉수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여 <성산관일>의 구도와 비슷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림 속의 길도 매우 험난하게 그려졌는데 오른쪽 푸른 빛의 바다에서는 日出 주위에 붉은 빛의 광채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전통성을 띠고 있는 《관동십경도첩》 중 <죽서루도>에서 해가 광채를 띠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도 1).<sup>44)</sup>

다음으로 명월소를 그린 <명월조점> · <명월시사>와 조천관을 그린 <조천조점>, 별방소를 그린 <별방조점> · <별방시사> 등 주요 군사지역을 그린 십경지역을 살펴보겠다. 이들 작품은 거의 같은 구도로 그려졌다. 부감시의 평면적인 회화식 지도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행했던 행사들이 그려졌다. 명월소 지역의 경우 성읍을 제외한 주변 배경이 매우 소략하여 성읍 주변의 몇채의 촌락과 성 앞의 길다란 우물, 성과 바다 사이의 논의 표현 등은 거의 같은 구도로 그려졌다(도 21). 순력도첩에서 기록화적인 성격이 더 강조된 작품이지만 후대의 <명월소>와 비교할 때 구도와 소재의 표현 등이 매우 유사함이 확인된다(도 21,22).

것이 이 사후가 아닌가. 『탐라순력도첩』영인본, p. 58.

44) 홍선표, 앞의 책, p. 493.



<조천조점>의 경우 복잡한 해안선과 많은 수의 배들의 모습 등의 모습에서 당시 십경으로 선택되었던 풍경을 짐작할 수 있으며 <별방조점>에서는 평면적인 회화식 지도의 형태에 그리고 진과 주변에 촌락과 포구, 연대, 봉수 등이 나타난다(도 23,24).<sup>45)</sup>

그러나 <서귀조점>은 탐라십경도의 구도를 모두 포괄하지 않았다. (도 25). 이익태의 기록보다 너무 소략하게 그려졌고<sup>46)</sup> 민속박물관의 <서귀진>과도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도 26). 서귀진의 모습은 절벽과 못이 바다로 통하는 부분이 소략하게 그려져 이러한 특징을 잘 부각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정방탐승>과 <천연사후>에서 이미 정방폭포와 천지연을 그렸기 때문에 이를 대략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탐라순력도첩》에서 나타나는 탐라십경과 후대본의 정형화된 탐라십경도는 지형의 구도와 시점 등이 거의 흡사하다. 시대에 따라 화풍과 배경의 변화는 나타나지만 기본적인 해안선의 모양 등의 형태와 명승을 바라보는 시점이 같은 것은 제주명승도의 기본적인 성격이 회화식 지도의 평면구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내용에서 이형상이 실제 행한 일들을 추가된 것은 《탐라순력도첩》만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난다 하겠다. 전통적인 화풍의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그림의 세부에서 이형상 자신의 치적 등이 그려져 독자성이 나타난다.

## V. 맺음말

한 지역의 유명한 경치들을 팔경이나 십경으로 유형화시키는 작업은 고려시대 중국의 소상팔경이 들어온 이후부터 지속된 양상이다. 이 논

45) 이익태, 앞의 책, p. 66.

46) 이익태의 기록을 살펴보면 천지연과 정방폭포가 함께 어울려져 서귀포 동쪽의 푸른 절벽과 폭포, 못이 바다와 통하는 모습, 소나무 수십그루가 나란히 줄을 이루고 있는 모습 등이 묘사되었다.

문에서는 17세기 실경산수화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지방 관리의 공적인 업무인 순력과 함께 제작된 회화활동을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팔경, 십경을 그린 정형화된 기행사경도는 함흥, 북관을 비롯한 관서, 관동 등의 지역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약간 늦은 시기이긴 하지만, 17세기 말 제주에서도 십경도가 만들어졌다. 특히 제주지역을 그린 탐라십경도가 함경도를 그린 북관, 함흥십경도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탐라순력도첩》은 기록화적인 의의가 강조되어 행사도 속에 탐승적인 성격을 집어넣거나 실경산수화로서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첩》은 18세기 초 제주명승도가 그려진 작품으로 십경의 특징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17세기의 실경산수화 제작양상이 전통적인 화풍으로 구현되어 흥미로움을 더 해준다. 앞으로도 탐라십경도에 대한 더 많은 자료 발굴이 이루어져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탐라십경의 수용양상과 19세기 민화풍의 탐라십경도가 그려진 원인에 대한 심도높은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접수일 : 07.09.10

#### <참고 문헌>

-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돌베개, 2001.  
 김상성 외 저, 규장각 역, 『관동십경』, 효형출판 1999.  
 김현지, 「조선중기 실경산수화의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  
 국립민속박물관, 『한반도와 바다』, 2004.  
 국립제주박물관, 『조선중기 역사의 진실 - 이익태 牧使가 남긴 기록』, 2005.  
 고창석, 「이익태 목사의 업적」, 『조선중기 역사의 진실 - 이익태 목사가 남긴 기록』, 국립제주박물관, 2005.  
 박은순, 「혜사(慧史) 문명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 화원과 궁중회화 - 조선 초기 궁중회화의 양상과 기능(2)」, 『강좌미술사』 26호, (한국

- 불교미술사학회, 2006), pp. 1015-1545
- 박정혜, 「의궤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화원」, 『미술사연구』 9호(미술사연구회, 1995), pp. 203-290
- 안휘준, 「조선시대의 화원」, 『한국문화』 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8(『한국 회화사 연구』(시공사, 2000), pp. 732-761에 재수록)
- 柳京熙, 「혜사(慧史) 문명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 왕실 발원 불화와 궁중 화원」, 『장좌미술사』 26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pp. 575-608.
- 이경화, 「北塞宣恩圖 연구」, 『美術史學研究』 254호, 한국미술사학회, 2007, 6.
- 이내옥, 「탐라순력도」, 『한국문화와 제주』, 서경, 2003, pp. 193-201
- \_\_\_\_\_, 『공재 윤두서』, 시공사, 2003.
- 이보라, 「朝鮮時代 關東八景圖의 研究」,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5.
- 이수미, 「〈咸興內外十景圖〉에 보이는 17세기 실경산수화의 구도」, 『美術史學研究』 233・234호, 한국미술사학회, 2002, 6, pp. 37-62.
- 이익태 저, 김익수 역, 『知瀛錄』, 제주문화원, 1997.
- 이 찬, 「耽羅巡歷圖 南宦博物 解題」, 『탐라순력도・남환박물』 1984.
- 崔岌, 『簡易集』 卷3 (이상현 역, 『국역 간이집』 1, 민족문화추진회, 1999)
- 장효순,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연회에 관한 연구 - 무용을 중심으로」, 『耽羅巡歷圖研究論叢』, 濟州市耽羅巡歷圖研究會, 2000.
- 하순애, 「18세기 초 제주인들의 신앙생활과 신당파괴사건」, 『耽羅巡歷圖研究論叢』(濟州市耽羅巡歷圖研究會, 2000.
- 한국역사연구회조선시기사회사연구반, 『(대우학술총서)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 洪善杓, 「南九萬題 咸興十景圖」, 『미술사연구』 2, 미술사연구회, 1988, pp. 139-148.
- \_\_\_\_\_, 「〈탐라순력도〉의 기록화적 의의」, 『탐라순력도』, 제주시, 1994(『조선시대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pp. 483-494에 재수록)

<표 1>. 이익태 목사의 가을 巡歷 일정<sup>47)</sup>

날 짜	행 한 일
1694년 9월 초9일	出行 조천관 숙박 － 軍器 점열, 봉수·연대 등의 곳을 척간
9월 10일	앞오름에 獵場 별방소 숙박
9월 11일	수산소 점검 정의현 객사
9월 12일	향교 배알
9월 13일	의귀리, 효돈, 서흥리, 서귀소 도착
9월 14일	천지연 구경 고돈과원, 천지연(현 천제연), 산방 대정현
9월 15일	軍器 점검 향교 배알, 향교 학생들에게 試講 송악－모슬소－차귀소
9월 16일	초악오름(새오름)에서 사냥수렵, 명월소
9월 17일	명월소 점검
9월 18일	애월소 점검
9월 19일	도근천(도근천) 제주 營 도착

47) 『조선중기 역사의 진실 - 이익태 牧使가 남긴 기록』의 p. 37 참조

&lt;표 2&gt; 《耽羅巡歷圖帖》의 내용과 성격

번호	이름	날짜	행한 일	성격	
				기록	실경
1	한라장촉	1702년 숙종 28년 4월 15일	제주도 지도		
2	승보시사	6월 17일	승보시 광경을 그린 그림	○	
3	공마봉진	6월 초7일	진상에 필요한 말을 각 목장에서 징발하여 제주목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광경을 그린 그림	○	
4	감굴봉진	기록없음	각 종류의 감굴과 한약제로 사용되는 굴껍질을 봉진하는 그림.	○	
5	굴림풍악	기록없음	망경루 後園 橘林에서의 풍악도		○
6	교래대렵	10월 11일	교래 지경에서 진상을 위한 산짐승과 날짐승을 사냥하는 그림.	○	
7	산장구마	10월 15일	산장에서 말을 몰아 일정한 장소에 모으고 마필 수를 확인하는 그림.	○	
8	성산관일	7월 13일	성산 日出峯에서 해 뜨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		○
9	우마점마	7월 13일	우도 목장내에 있는 말을 점검하는 그림	○	
10	화북성조	10월 29일	禾北鎭에 소속된 城丁軍의 군사훈련 모습.	○	
11	조천조점	10월 29일	朝天鎭 성정군의 군사훈련과 인근 제 조 목장의 屯馬를 점검하는 그림	○	
12	김녕관굴	10월 30일	김녕의 熔岩窟에 햇불을 들고 들어가는 그림		○
13	별방조점	10월 30일	별방성에서의 군사훈련과 성정군 군기 우마를 점검하는 그림.	○	
14	별방시사	11월 초1일	별방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뽑는 광경을 그린 그림	○	
15	수산성조	11월 초2일	순력중에 점심을 수산진에서 먹음	○	
16	정의조점	11월 초2일	정의현성에서의 조련과 체반사항을 점검하는 그림	○	
17	정의양노	11월 초3일	정의현성에서 치루어진 노인잔치 광경	○	
18	정의강사	11월 초4일	정의현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시취하는 그림	○	
19	정방탐승	11월 초5일	정방폭포를 탐승하는 모습		○
20	천연사후	11월 초6일	천지연 폭포에서의 활을 쏘는 광경을 그린 그림		○

21	서귀조점	11월 초5일	서귀진의 조련과 군기 및 말을 점검하는 그림	○	
22	현폭사후	11월 초6일	천제연폭포에서 활 쏘는 모습을 그린 그림		○
23	고원방고	11월 초6일	고둔과원에서 왕자구지를 탐방하는 모습		○
24	산방배작	11월 초10일	산방굴에서의 배작광경을 그린 모습		○
25	대정조점	11월 초10일	대정현성의 성정군 조련과 대정현의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그림	○	
26	대정배전	11월 11일	대정현에서 시행된 拜箋의 광경을 그린 그림.	○	
27	대정양노	11월 11일	대정현에서의 노인잔치 광경.	○	
28	대정강사	11월 11일	대정현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試射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	○	
29	모슬점부	11월 13일	모슬진 군대의 점검도.이형상 목사가 직접 점검하지 않고, 軍官인 前萬戶 柳星瑞를 대신 보내어 점검을 행하였다.	○	
30	차귀점부	11월 13일	차귀진의 조련과 점검도	○	
31	명월조점	11월 13일	대정현에서의 노인잔치 광경.	○	
32	명월시사	11월 14일	명월진성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시취하는 모습	○	
33	에월조점	11월 14일	에월진의 군사와 말을 점검하는 모습	○	
34	제주조점	11월 15일	제주읍성에서의 성정군의 조련과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그림	○	
35	제주사회	11월 18일	활쏘기 전 관덕정 앞에 정렬해있는 모습	○	
36	제주전취	11월 17일	제주목사가 관하 각 관리의 치적을 심사하는 모습	○	
37	제주양노	11월 19일	제주목에서 치루어진 노인잔치	○	
38	병담범주	기록없음	취병담에서의 뱃놀이를 그린 모습		○
39	건포배은	12월 20일	조정에 배례하는 모습과 제주의 각 마을에 있었던 신당의 일부가 불타는 모습 영인본의 해제에 11월 20일은 오타임)	○	
40	비양비록	10월11일~4월 28일(1703)	사슴을 생포하여 비양도에 옮겨 放飼하는 그림.	○	
41	호연금서	기록없음	甫吉島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호연한 마음으로 거문고를 타며 책을 읽는다는 뜻의 그림.		○

<도 판>



<도 1> 필자미상, <죽서루도>, 《關東十景圖帖》, 1748 년경 건본채색  
31.5×22.5 cm, 규장각





<도 2> 김남길, <건포배은>, 《耽羅巡歷圖帖》의 39면, 지본채색,  
55×35cm, 제주시





<도 3> 김남길, <호연금서>, 《耽羅巡歷圖帖》의 41면, 지본채색,  
55×35cm, 제주시



<도 4> 김남길, <한라장축>, 《耽羅巡歷圖帖》의 1면, 지본채색,  
55×35cm, 제주시





<도 6> 김남길, <한라장축>의 산방산 부분, 《耽羅巡歷圖帖》의 1면, 지본채색, 55×35cm, 제주시



<도 7> 김남길 <한라장축>의 성산과 우도 부분, 《耽羅巡歷圖帖》의 1면, 지본채색, 55×35cm, 제주시



<도 8> 김남길, <김령관굴>, 《耽羅巡歷圖帖》의 12면, 지본채색,  
55×35cm 제주시





<도 9> 김남길, <굴림풍악>, 《耽羅巡歷圖帖》의 5면, 지본채색,  
 55×35cm, 제주시



<도 10> 김남길, <산방배작>, 《耽羅巡歷圖帖》의 24면, 지본채색,  
55×35cm 제주시





<도 11> 산방산 실경



<도 12> 필자미상, <산방>의 부분, 《탐라십경도》, 61×40cm 국립민속박물관



<도 13> 김남길, <병담범주>, 《耽羅巡歷圖帖》의 38면, 지본채색,  
55×35 cm, 제주시



<도 14> 김남길  
<정방탐승>의  
부분, 《耽羅巡歷  
圖帖》의 14면, 지  
본채색, 55×35 cm  
제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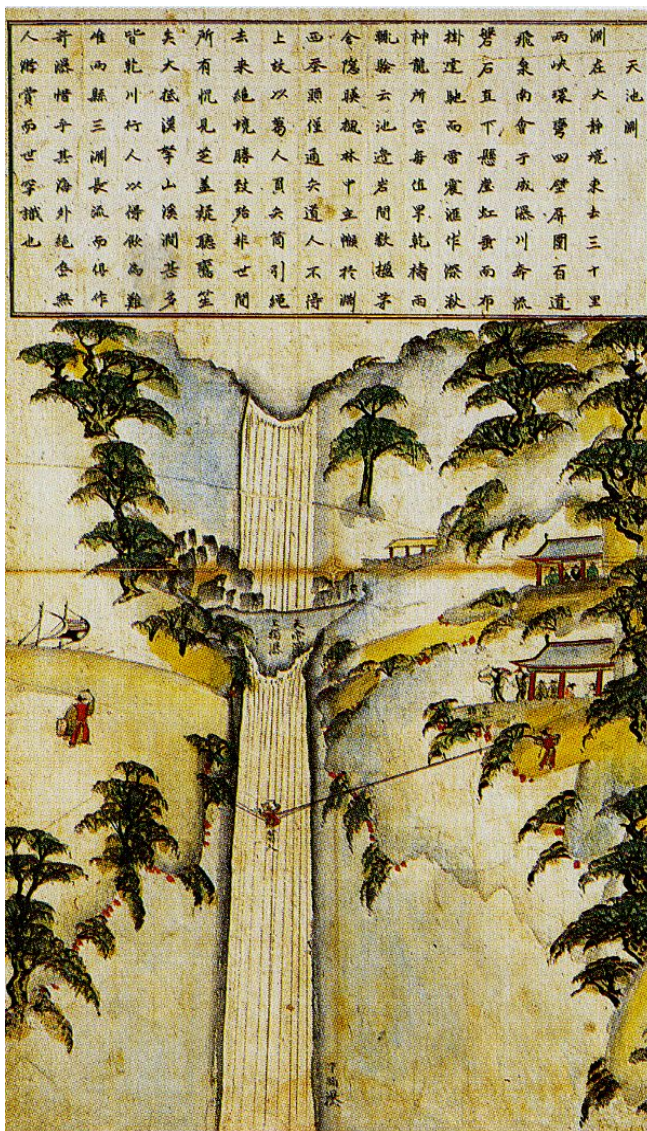


<도 15> 필자미상, <취  
병담>, 《영주십경도》  
63×36 cm 일본 고려미  
술관



<도 16> 김남길, <현폭사후>, 《耽羅巡歷圖帖》의 22면, 지본채색,  
55×35cm, 제주시





<도 17> 필자미상, <천지연>, 《제주십경도》, 51.8×30.2 cm  
국립민속박물관



<도 18> 김남길, <천연사후>의 부분, <耽羅巡歷圖帖>의 20면, 지본채색, 55×35cm, 제주시



<도 19> 천제연 지도와 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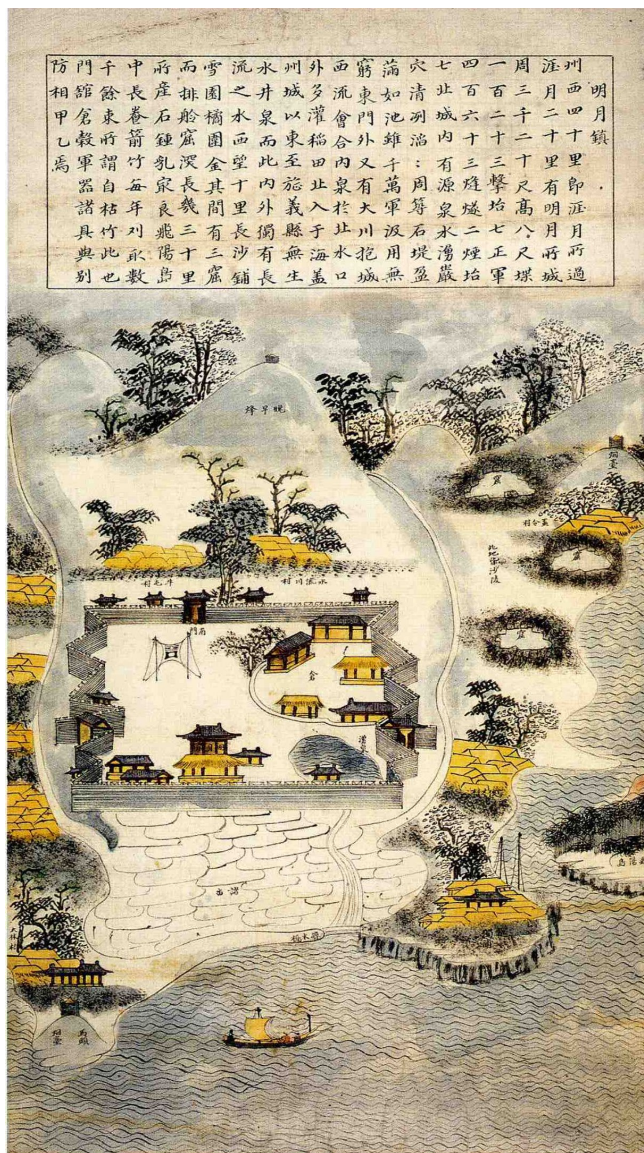


<도 20> 김남길, <성산관일>, 《耽羅巡歷圖帖》의 8 면 1703 년  
지본채색, 55×35 cm 제주시



<도 21> 김남길, <명월조점>, 《耽羅巡歷圖帖》의 31면, 1703년, 지  
본채색, 55×35 cm 제주시





<도 22> 필자미상, <명월소>, 《영주십경도》, 63 × 36 cm 일본  
고려미술관



<도 23> 김남길, <조천조점>, 《耽羅巡歷圖帖》의 11 면 1703 년  
 지본채색, 55×35 cm 제주시





<도 24> 김남길, <별방조점>, 《耽羅巡歷圖帖》의 13면, 1703년, 지본채색, 55×35cm, 제주시



<도 25> 김남길, <서귀조점>, 《耽羅巡歷圖帖》의 21 면 1703 년  
지본채색, 55×35 cm 제주시





<도 26> 필자미상, <서귀소>, 《제주십경도》, 51.8×30.2 cm  
국립민속박물관

## Abstract

*The Formation of Tamla Sipgyeongdo (the ten views of Jeju) in late 17th century and its influence on Tamla Sullyeokdocheop / Lee, Bo-La*

This paper has rediscovered Lee Ik-Tae's Tamla Sipgyeongdo in the late 17th century and investigated its relevance with Tamla Sullyeokdocheop. The Lee's ten famous views of Tamla is important resource in analyzing real-scenery landscape painting characteristics of Tamla Sullyeokdocheop. Based on analysis on the painting style and type of Tamla Sipgyeongdo during 19th century, its painting style in an early period has been estimated. The subject and composition of painting were handed down from the 19th century painting.

Tamla Sipgyeongdo and Tamla Sullyeokdocheop that were painted by Jeju government official in 1694 and 1703 respectively are important in that the historical records are left with paintings. In 1694, Lee Ik-Tae was a Jeju government official and went island rounds twice. Then, he made Tamla Sipgyeongdo. Even though the painting does not exist, it's closely related with Nam Gu-Man's Hamheung Sipgyeongdo and Bukgwan Sipgyeongdo (Painting of Hamgyeongdo in the 17th century). As Nam Gu-Man was made the ten views while he was a governor of Hamgyeongdo, Lee Ik-Tae was a governor of the province as well. Therefore, the Lee's painting style seemed very similar with Nam's Sipgyeongdo. Lee Hyeong-Sang who was appointed as the governor in 1702 painted Tamla Sullyeokdocheop which displays over 40 paintings. The beach painting seemed very similar with Tamla Sipgyeongdo in terms of a composition of painting. Besides, it seems that the painting was greatly influenced by Tamla Sipgyeongdo in that the 10 views of Tamla Sipgyeong were mostly included (except for Baeknokdam, Yeonggok).

The standardized Palgyeongdo and Sipgyeongdo paintings covered beautiful

sites in Hamgyeongdo including Gwandong and Gwanseo areas. Besid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Sipgyeongdo was also popular in a far-away area Jeju until the 19th century. In particular, Jeju Sipgyeongdo in late 17th century is unique because it greatly retains the traditional painting style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vel paintings. Even though there was no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painters worked hard to keep the traditional style of paintings in the 17th century.

Key words: Tamla Sipgyeongdo (the ten views of Tamla), Tamla Sullyeokdocheop, Lee Ik-Tae, Lee Hyeong-Sang, Sulyeok (tour), local painter

